충북은행 독자생존

건 의 (안)

의안번호 47

제안년월일 : 1998. 11. 10
제 안 자 : 산업경제위원장

1. 주 문

○ 지역자금 조달을 담당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이 많은 충북 은행을 독자 생존할 수 있도록 건의

2. 제안 이유

○ 충북은행이 시중은행에 흡수 합병되는 것을 방지하고 독자 생존할 수 있도록 건의

○ 지역산업자금 조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충북은행의 존치 건의

3. 참고 사항

"없 음"

충북은행 독자 생존 건의(안)

IMF 관리체제로 인한 국가경제 난국의 극복과 제2건국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재경부장관 금융감독위원장 님께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충북은행이 시중은행인 조흥은행과의 합병설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하여 합병이 될 경우 지역경제 전반에 초래될 혼란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지방은행은 지역사회와 공동운명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시중은행과의 합병은 시너지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회생을 염원하는 도민의 정서와 배치되는 일 입니다.

또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합병된 선례를 보더라도 지역금융기관이 없어지면 예금고객이 대거 이탈되고 지역의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어 지역 중소기업의 부도 증가 등 지역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같은 현실로 놓고 볼 때 충북은행이 독자적으로 존립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이래 최대위기를 맞고 있는 충북은행은 지난해 9월 이후 3차례에 걸쳐 경영진 4명을 전원 교체하여 이중 3명은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은행법상 지방은행 최저자본금 250억원을 제외한 885억원의 자본금 감자를 완료하였으며, 23개 점포폐쇄와 33%의 조직감축 및 337명의 인원감축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부실대출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50만 도민과 기업 및 각 기관단체에서 범도민적으로 충북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있을뿐 아니라 금감위에서 제시된 각종 조건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때에 합병설을 운운하는 것은 정상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로서 있어서도 있을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충북 지역경제는 지난 구조조정시 도내 본사를 둔 종금사, 생보사, 리스사 등의 퇴출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때문에 무슨일이 있어도 도민의 은행인 충북은행만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것이 전 도민의 깊은 염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 국회의장 / 재경부장관 / 금융감독위원장 님

이제 충북지역의 금융기관은 충북은행만이 남아 있어 충북경제의 유지, 회생을 위해서는 충북은행이 독자 생존하여 산업자금 지원은 물론 각종 문화, 예술, 체육, 환경, 장학사업 등의 지역 밀착사업을 추진하고 낙후된 지역경제가 회생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대통령님께서도 지난 9월 21일 충북도 방문시 충북은행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역상공인은 물론 도민의 기대 또한 크다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 충북도민의 희망을 헤아리시어 충북은행이 독자생존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 국가 난국이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998년 11월 1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